

從屬理論의 主要論點과 問題點批判

教 養 科 金 亮 奕
副 教 授

I. 緒 論

오늘날 많은 新生國家(emerging Nations)¹⁾들은 오래동안 列強의 植民統治下에 있었던 國家들로서, 한때는 自己들의 隸屬性과 劣等意識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 들였으나, 第2次 世界大戰의 終末은 그들에게 새로운 期待와 要求의 上昇作用을 낳게 하는 決定的인 契機가 되어 貧困과 悲慘과 桎梏에 대한 代案을 발견치 못하던 과거의 宿命論的 諦念代身에 Strachey가 말한 이른바 偉大한 覺醒(great awakening)²⁾을 발판으로 하여 새로운 個人的 國家의 民族的 諸要求를 앞에 내세우면서 上昇하는 期待의 革命(The revolution of rising expectation)³⁾을 遂行하기에 寧日이 없다.

列強의 植民統治에서 벗어난 이들 新生國家들은 오늘날 自身들의 存在에 대한 重要性을 認識하고 世界史의 흐름에 적극 參與함으로써 國際社會에서 중요한 勢力으로 登場하게 되었는데, 이들 新生獨立國家群을 우리는 第3世界⁴⁾라 부르고 있다.

第3世界 形成의 初期段階인 1950年代와 60年代에 있어서 3第世界의 指導者들은 國家建設 課業遂行과 冷戰的 同盟體制의 가담이 源泉的으로 모순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反帝國主義, 反植民主義라는 이데올로기로 國際的 連帶性을 강화하는 運動을 시도하는 동시에, 國內的으로는 民族主義의 정열을 政策 또는 國民統合에 活用하기에 이르렀다. 1970年代에

¹⁾ 先進國은 advanced, developed 또는 modern 등으로 表現되는데 反하여 第2次 世界大戰을 契機로 유럽植民地體制의 崩壞와 더불어 새로이 民族獨立을 爭取한 亞阿地域을 包括하는 新生諸國은 各樣各色으로 表現되고 있다. 즉, 이들 新生諸國은 社會的, 文化的, 經濟的 그리고 政治的으로 近代化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traditional, undeveloped, underdeveloped, backward, developing, transitional, modernizing, non-industrialized 등 여러가지로 表現되고 있다.

²⁾ John Strachey, *The Great Awakening, Encounter*, (pamphlet), No.5, p.1.

³⁾ Eugene Staley, (ed.), *The Future of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Frerick A. Praeger Inc., 1961, p.15.

⁴⁾ 第3世界라는 用語가 등장된 것은 戰後의 國際關係가 美蘇兩國을 軸으로 하는 양극화와 냉전 체계가 顯在化되고 있을 때 그 어느 불럭에도 가담하는 것을 꺼린 일부 新生獨立國家群들이 그들의 獨自의 外交政策에 입각하여 초연한 입장을 취한데서 기인된다. 말하자면 美國을 위시한 資本主義 諸國을 第1世界라 하고 蘇聯 및 동구권을 위시한 공산권을 第2世界로 간주함으로써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新生獨立國을 第3世界로 호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第3世界라는 新造語는 프랑스 文化圈에서 처음 사용된 것만은 틀림없다. 第3世界라는 말은 第3身分이라는 말에서 빌어 쓴 것으로 第3身分이란, 프랑스 革命당시 三部會에서 革命의 임무를 완수한 身分으로서 과거에는 망각되고 착취당하고 멸시를 받아온 계층이지만, 앞으로는 時代를 질러질 계급이라는 위앙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第3身分과 第3世界를 결부시키면, 第3世界라는 用語가 단순히 經濟的 현실을 記述하는 개념이 아니라 政治的, 社會的 및 文化的 의미가 함축된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植民地가 解體되었기 때문에 第3世界 슬로건의 求心點을 經濟問題에 돌리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看過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第3世界가 과거에 한결같이 植民統治下에 있었다는 歷史的인 사실과 近代의 西歐文明이 非西歐地域에 접촉됨으로써 거의 例外없이 非西歐地域의 傳統文化를 파괴하고 貧困化를 促進시켰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현재 그들이 貧困하다는 것이다.⁵⁾ 즉, 第3世界の 가난한 현실은 과거 植民主義에 의한 擄取의 결과 때문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共通的 利害關係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第3世界の 發展問題는 그것을 보는 視角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西歐的인 發展理論을 반영하는 傳統學派(mainstream theory)에서는 第3世界の 低發展은 先進國과는 다른 歷史的 背景이 存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傳統的인 學者들은 第3世界の 發展을 制限的인 것으로 보고 發展國과 協助 또는 發展國의 好意에 의해서만 經濟的 利益을 얻을 수 있다는 論旨를 주장해 왔다.

傳統學派가 주장한 第3世界 發展理論에 대한 批判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첫째는 第3世界の 低發展은 第3世界가 가지고 있는 本源的 本來的 狀態가 아니라, 人爲的으로 造成된 狀態라는 것이고, 둘째는 第3世界の 低發展은 3第3世界の 內在的 狀況이 아니라 資本主義的 國際體制의 脈絡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傳統學派가 주장한 第3世界の 發展理論에 대한 代案的 視角에서 從屬理論(dependency theory)⁶⁾이 나오게 되었다.

⁵⁾ Berger는 西歐資本主義의 經濟成長이 植民地의 수탈의 결과라고 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물론 西歐資本主義의 經濟成長이 식민지 수탈에 전연 무관한 것은 아니나 전적으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英國의 경제성장이 인도의 수탈의 결과라고 한다면 南美諸國을 그토록 수탈한 스웨인과 포르투갈은 왜 성장하지 못했는가 하고 Berger는 의문을 제기한다. P.L. Berger, *Pyramids of Sacrifice: Political Ethics and Social Change*, N.Y.: Garden City, 1976.

⁶⁾ 國內에서 出刊된 從屬理論에 관한 主要 著書 및 譯書는 다음과 같다.

- <著書> 염홍철, 「第3世界와 從屬理論」(서울: 한길사, 1980).
 염홍철, 「從屬理論: 저발전의 정치경제학」(서울: 법문사, 1981).
 河瓊根, 「제3세계 政治論」(서울: 한길사, 1980).
 邊衡尹·朴玄塚 外, 「제3세계의 이해」(서울: 형성사, 1983).
 조용범, 「후진국 경제론」(서울: 박영사, 1983).
 成大 附設 社會科學研究所編, 「從屬理論: 그 理解와 批判」(서울: 법문사, 198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우리의 현실과 좌경과격시장」(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裴燦福, 「이데올로기 理論과 實踐」(서울: 법문사, 1984).
 金致河 外, 「國際社會와 이데올로기」(서울: 敎學研究社, 1984).
 金善亨 外, 「現代社會와 이데올로기」(서울: 大旺社, 1982).
 金永文, 「中共의 世界戰略: 第3世界論과 그 實際」(서울: 大旺社, 198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第3世界 研究(Ⅱ)」(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金得柱, 「이데올로기론」(서울: 박영사, 1982).
 韓點殊, 「이데올로기 新論」(서울: 大旺社, 1985).
- <譯書> 朴在默 譯, 「第3世界 社會發展論」(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4).
 朴중수 譯, 「從屬理論이란 무엇인가」(서울: 청아출판사, 1984).
 鄭世九 譯, 「現代政治 이데올로기」(서울: 敎育科學社, 1985).
 김호진 譯, 「第3世界の 政治經濟學」(서울: 한울사, 1984).
 변형윤 譯, 「제3세계의 경제발전」(서울: 까치글방, 1980).
 염홍철 譯, 「중속이론과 정통마르크스주의」(서울: 한울사, 1984).

이러한 從屬理論은 1960年代 중반부터 Frank, Santos, Amin 등의 學者가 주동이 되어 라틴 아메리카 經濟委員會의 理論을 批判하고 補完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戰略戰術과 결부시켜 暴力과 破壞를 수반하는 過激한 革命의 方法으로 資本主義를 批判하거나 社會主義運動으로 전환시켜 가는 등 복잡한 양상을 낳게 되자 이에 대한 관심도 가일층 높게 되었다.

이와 같은 問題意識을 토대로 한 從屬理論이 1970年代 후반에 우리 學界에 소개되었을 때 社會科學者들과 大學生들에게 많은 관심과 論議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一部 大學生들은 현실을 分析함에 있어서 從屬理論을 批判的으로 受容하는 자세가 아니고 이 理論의 一分派에 불과한 南美의 네오 마르크스主義者들이 주장하는 과격한 行動主義的 理論과 이데올로기를 우리의 現實에 그대로 適用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첫째로 우리가 從屬의 概念을 理解함에 있어서 留意해야 할 점이 무엇이며, 從屬理論을 形成시킨 歷史的인 背景이 어떠한가를 살핀 다음, 둘째로 從屬理論의 主要論點을 重點的으로 分析하고, 셋째로 從屬理論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批判을 위한 측면에서 從屬理論과 마르크스-레닌主義는 어떠한 입장에서 關係가 있으며, 넷째로 從屬理論의 問題點으로써 提起되는 몇 가지 誤謬點을 分析 批判하므로써, 끝으로 分斷이라는 우리 韓國의 特殊狀況에서 從屬理論의 受容問題를 檢討해 보고자 한다.

II. 從屬의 概念

從屬理論은 전체적인 理論體系가 從屬(dependence, dependency)이라는 概念을 주축으로 하여 展開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從屬理論은 오늘의 第3世界가 中心國에 從屬되어 있다는 사실을 前提로 한다.

그렇다면 從屬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從屬이란 말은 從屬理論家들 사이에서도 아직 概念定義에 대해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단히 모호한 概念이다. 그 한 例로 英文表記에 있어서도 dependence로 할 것이냐, dependency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意見이 對立되고 있는 실정이다. Caporaso에 依하면 dependence는 단순히 國家相互間의 非對稱的인 相互依存關係 즉 關係上의 不平等(relational inequality)을 지칭하는 概念이며, dependency는 相互依存 關係의 不均衡을 넘어 國際資本主義體制의 下部構造(多國籍企業등)가 劣勢國 經濟를 構造的으로 吸收·統合함으로써 惹起되는 構造的 不平等(structural inequality)을 의미한다.²⁾

從屬概念을 後者와 같이 규정할 경우에는 帝國主義의 概念과 大同小異하며 다만 帝國主義의 支配樣式이 武力을 동반한데 反해 從屬概念은 經濟的 吸引力과 統合力을 앞세웠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Santos는 dependence와 dependency를 구별하지 않고 從

屬을 dependence로表記하고 있다. 그의 定義에 따르면 從屬이란 一群의 國家經濟가 다른 一群의 經濟發展과 膨脹 때문에 制約을 받는 하나의 制約狀況(a conditioning Situation)을 의미한다.⁸⁾ Santos는 從屬을 dependence로表記했지만 定義는 dependency의 意味로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dependence와 dependency는 同一概念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從屬의 程度, 範圍, 領域에 관한 限界設定이다. 왜냐하면 완벽한 의미의 相互依存關係나 互惠平等關係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고, 互惠의인 從屬關係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從屬의 限界設定은 一律적으로 할 수 없고 事例에 따라 論者의 主觀的인 견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實證的인 指標에 의해 判別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論議에 비추어 보면 從屬의 概念은 經濟的인 從屬을 지칭함이 分明하지만 반드시 經濟的인 意味만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며, 政治, 軍事, 技術, 文化, 情報 등 여러 次元에서도 形成될 수 있는 것이다. 從屬의 概念을 어떤 次元과 領域에서 어떤 意味로 규정하는 그 要諦는 外勢 또는 外國文物의 侵透로 인해 自律性을 喪失하게 되는 것을 함축한다는 點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

III. 從屬理論의 形成背景

오늘날 第3世界에 팽배하고 있는 從屬理論은 1960年代를 前後하여 주로 라틴 아메리카의 學者들이 第3世界의 低發展에 대한 問題意識을 고조시키면서 形成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從屬理論은 자기 다른 道具, 概念, 豫測을 사용하는 2個의 相異한 分析樣式으로 發展되어 왔다. 그 하나는 유엔 산하 라틴 아메리카 經濟委員會(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ECLA)의 構造主義的 觀점을 繼承, 深化시키는 構造主義學派⁹⁾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主義的 觀점에서 出發한 것으로서 ECLA의 輸入代替의 工業化政策¹⁰⁾이 라틴 아메리카의 低發展을 說明하지 못한다는 不滿에서 출발한 學派이다.

⁸⁾ James A. Caporaso, et. al. (1978),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Special Issue on Dependence and Dependency), Vol. 32, No.1. (Winter, 1978), p.2.

⁹⁾ Theotonio Dos Santos, "The Structure of Depen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0, No.2 (1970).

⁹⁾ 오늘날 제3세계 국가들이 저발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국제체제의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단의 종속이론가를 말한다. 그들은, 제1세계의 발전국들이 지배하는 국제체제속에 편입됨으로써 저발전된 것인만큼, 그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체제의 불평등한 구조문제를 강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조주의 학파라 칭한다.

¹⁰⁾ 저발전국이 농·광산물을 수출하고 공업제품을 수입하는데서 저발전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는 공업화를 이룩해야 하며, 공업화의 대상은 지금까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견해에서 생긴 정책이다. 즉,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입상품들을 수입하지 않고 대신 국내에 공장을 세워 생산함으로써 국산화 시키자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資本, 設備, 技術, 用役, 原料 등의 지나친 도입의 결과, 누적된 外債의 중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 당시 라틴 아메리카의 政治, 經濟, 社會的 狀況은 어떠 했으며, 어떤 要因들이 從屬理論의 胎動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 要因으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① 戰後 民族解放運動이 승리하고 民族資本家 階層이 權力을 장악함으로써 輸入代替의 工業化政策이 추진된 점, ② 그 政策 추진과정에서 國際的, 國內的으로 불공평한 所得分配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失業과 貧困에 시달리고 産業化가 一次的으로 外國資本家에 의해 수행되는 등 社會·經濟的인 모순이 누적됨에 따라 그 政策이 失敗로 끝나게 된 점, ③ 이와 같은 渦中에서 軍部가 權力을 장악하는 등 새로운 軍事主義的 傾向이 대두되었고, ④ 쿠바 革命으로 상징되는 社會主義的 民族解放運動이 재차 高揚된 點 등을 들 수 있다.¹¹⁾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라틴 아메리카는 그 以前에 採擇되었던 外部志向的인 發展戰略에서 벗어나 意思決定의 主體를 國內에서 담당하며, 政治的 民主化의 促進과 對外依存의 減少라는 名分으로 輸入代替의 工業化政策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政策은 결과적으로 對外貿易에의 依存, 外國資本에 의한 工業化 過程의 支配, 文化的 帝國主義的 加速的 侵透, 국민대중의 궁핍화를 深化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따라서 輸入代替의 工業化政策의 失敗는 민중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한편 ECLA의 理論에 대한 批判을 결과적으로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60年代 중반부터 Frank, Santos, Amin 등의 學者가 주동이 되어 ECLA의 理論을 批判하고 補完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主義的 偏後性이 강한 從屬理論은 그 基本틀을 갖추 나가기 시작하였다.¹²⁾

以上에서 論한 ECLA의 理論에 대한 불만과 構造主義的 觀點에서 形成된 從屬理論을 더욱 加速化시킨 또 하나의 背景은 쿠바革命의 성공이다.

쿠바는 1898년까지 스페인領이었으나 美國人の 經濟的 利益保護를 위하여 美·스페인間의 戰爭에서 美國이 승리하자 1902년까지 美軍政下에 놓이게 되었다. 그 후 쿠바는 獨立은 되었으나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으로부터 經濟的인 잠식이 대단했다. 따라서 土地改革을 포함한 經濟改革으로서 反資本主義를 선언한 카스트로는 1953年 7월 26일 몬가다 兵營의 공격을 비롯한 革命運動을 展開했다. 카스트로, 게바라 등이 지도한 시에라마에스트라에서의 게릴라戰을 중심으로 1956년 1월 바티스타政權을 타도했다. 쿠바革命의 성공은 第3世界에 대해 非資本主義的·非소비에트의 發展路線의 가능성을 提示해 준 획기적 사태로서 받아들여졌다. 또한 1960年代의 라틴 아메리카 地域에 있어서의 民族解放運動(특히 社會主義的 運動)의 폭발적인 高揚은 부르조아 社會科學과 教條的 마르크스主義를 동시에 批判하는 從屬理論의 形成에 비유한 토양을 제공해 주기에 충분하였다고 의식한 것 등이다.¹³⁾

따라서 從屬理論이 外國資本이나 부르조아의 經濟發展論에 대해 否定的 評價를 하는 것

¹¹⁾ Richard R. Fagen, "Studying Latin American Politics: Some Implications of Dependencia Approach",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XII, No. 2, 1977, pp. 6~7.

¹²⁾ 엄홍철, 「從屬理論: 低發展의 政治經濟學」(서울: 法文社, 1981), pp. 34~48 참조.

¹³⁾ 엄홍철, 上揭書, p. 55.

은 당연한 일이었다. 요컨대 從屬理論은 어떤 學問的인 思潮로서 自然的으로 發生된 것이 라기 보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展開된 反帝國主義의 民族解放運動의 실천과정에서 파생된 하나의 民族主義의 이데올로기다. 從屬理論을 마르크스主義와 같은 맥락의 理論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마르크스主義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確認할 수 있다.

IV. 從屬理論의 主要論點

從屬理論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從屬의 概念 그 자체가 모호한 데다가 概念의 定立 역시 通說이 없으며 各派간에 주장이 다르고 같은 派간에도 주장된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從屬理論家의 類派分類는 分類基準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지고 있다. 例컨대 Cardoso는 ① 自律的 國家發展論者(autonomous national development: Jaguaribe), ② 國際獨占資本主義論者(International monopoly capitalism: Baran과 Sweezy), ③ 構造的 從屬과 從屬의 資本主義論者(Cardoso) 등으로 分類했고, Chilcote는 ① 低發展의 發展論者(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Frank와 Rodney), ② 新從屬論者(New dependency: Dos Santos), ③ 從屬과 發展論者(Dependency and development: Cardoso), ④ 從屬과 帝國主義論者(Dependency and imperialism: Baran, Sweezy, Anibal Quijano)로 나누고 있다. Chilcote는 接近方法에 따라 非마르크스의인 反帝國主義論者(non-Marxist anti-imperialist)와 마르크스의인 反帝國主義論者(Marxist anti-imperialism)로 나누고 있다.¹⁴⁾ 한편 Bath와 James는 라틴 아메리카의 從屬의 分析(Dependency Analysis of Latin America)에서 從屬學派를 ① 保守主義者(conservative: Prebish, Pinto, Wionczek), ② 穩健主義者(moderalist: Furtado, Sunkel, Dos Santos), ③ 急進主義者(radical: Frank, Cockcraft, Johnson, Petras)로 分類했다.¹⁵⁾ 이처럼 다양한 從屬學派間的 論旨를 일일이 說明하거나 學說上의 共通點을 빠짐없이 소개한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從屬理論의 先驅者로 看做되는 學者들이 共通의인 問題로 提示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1. 中心과 周邊의 問題

Prebish가 從屬理論에 대한 準據的인 틀(Theoretical Framework)로서 中心과 周邊의 概念을 제시한 이래 거의 모든 從屬理論家들이 從屬理論의 基本構造를 論할 때 이 概念을

¹⁴⁾ 韓國政治學會, 「韓國政治學報, 第18輯」(서울: 한국정치학회, 1984), p.98.

¹⁵⁾ Bath and James, "Dependency Analysis of Latin America: Some Criticisms, Some Suggestions", Latin America Research Review, Vol. II, No.3 (1976), pp.6~11.

사용하고 있다.¹⁶⁾ 中心과 周邊의 概念은 世界를 工業化된 中心國(Center)과 一次產品을 生産하는 周邊國(Periphery)으로 二分시킨 다음, 中心國은 周邊國에 대해 垂直的 關係로서 支配關係이며, 특히 經濟的 支配—擄取關係로 보고 周邊國은 中心國에 대해 從屬關係에 놓여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從屬理論에 의하면 소수의 工業國家가 世界의 政治, 經濟, 社會的인 中心(center)을 形成하고, 全世界를 통하여 多樣化된 技術을 근간으로 財貨와 用役을 생산하며 유리한 貿易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低發展國들은 그와는 反對로 惡條件 아래 있으며 國際的인 政治, 經濟體制의 周邊(periphery)에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資本, 技術, 高級人力들이 부족하고 一次產品의 輸出에만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貧困에 머물고 中心國家는 더욱 부유해 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周邊國의 低發展 原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Prebish는 라틴 아메리카의 經濟發展과 基本問題(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principal problems)¹⁷⁾에서 比較優位原則에 의한 國際分業의 假定은 特殊한 것을 一般化시킨 結論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技術進步에 의한 利益波及은 工業中心國에 집중됨으로써 一次產品의 單位당 價格은 上昇하지 않거나 下落하고, 工業製品의 單位當 價格은 上昇한다고 했다. 따라서 一次產品의 對工產品 交易條件은 惡化될 뿐만 아니라, 周邊國의 貿易收支도 惡化되고 輸出을 통한 經濟成長은 어렵게 되므로서 所得隔次는 深化된다는 것이다.

Galtung은 그의 著書 帝國主義構造論(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¹⁸⁾에서 中心國을 中心과 周邊으로 나누고 또 周邊國도 中心과 周邊으로 나눈 다음 支配國의 中心部와 周邊國의 中心部間의 結탁으로 構造化된 從屬關係는 垂直的 分業 내지 垂直的 交易關係로 制度化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制度化를 통해 中心國의 中心部와 周邊國의 中心部間에 利潤追求가 相互補完된다고 하고, 이러한 關係를 現代帝國主義(contemporary imperialism)로 보고 있다. 또한 周邊國의 中心部는 中心國의 中心부에 밀착함으로써 共生을 누리게 되고 周邊國 자신의 값싼 勞動力을 中心國에 提供하므로써 中心國으로부터 特惠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特惠는 엄청난 규모여서 周邊國의 中心部는 中心國의 中心部보다 그 所得의 액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였다. Galtung은 이것을 利益의 調和(harmony of interests)라 칭했고, Quijans는 이를 從屬부르조아(dependent bourgeoisie)라 칭했다.

從屬理論家들은 從屬부르조아들이 周邊國인 低發展國에서 政治的, 經濟的 支配力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른바 買辦的 엘리트(Comprador elite)로서 支配國家의 支配集團보다

¹⁶⁾ 이들 從屬學派의 脫從屬 문제에 대한 견해는 <中心—周邊> 관계에 대해서는 Prebish, Amin, Galtung 등이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從屬理論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이다.

¹⁷⁾ R. Prebis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Principal Problems*, Economic Bulletin for Latin America, Feb. 1962.

¹⁸⁾ John Galtung, *The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XXX2, 1971.

垂直的 野合(illicit union)을 하여 자기들의 利益을 더욱 保護 유지하기 위하여 그 從屬關係를 더욱 深化시키고 構造化시킴으로써 中心國이 周邊國에 대한 擄取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있다.¹⁹⁾

또한 從屬理論家들은 世界資本主義經濟體制를 中心圈(metropolis)과 衛星圈(satellite)의 二大範疇(Frank)로 兩分하거나 中心(Core)—準周邊(Semiperiphery)—周邊(Periphery)의 三大範疇(Wallerstein)로 類型化하고 各 範疇間의 關係를 不平等交換 또는 擄取關係로 看做한다. Wallerstein에 의하면 世界資本主義經濟體制는 中心部—準周邊部—周邊부로 나누어지는 세 個의 國家群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強力한 國家機構를 갖고 自由賃金勞動에 기초하여 製造品 生産에 주력하는 中心部는 허약한 國家機構를 갖고 勞動에 근거하여 農產物 耕作에 主力하는 周邊部를 國際交易의 과정에서 剩餘를 收奪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準周邊部는 中心부와 周邊부의 中間地帶에 위치하여 一面 中心部로부터 收取당하면서 他面에서는 周邊부를 受取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²⁰⁾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區別은 一國의 內部構造를 說明하는 데에도 利用하고 있다. 從屬理論家들은 國內植民主義(internal colonialism)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都市와 農村의 關係를 中心과 邊方의 關係로 규정하고 兩者間의 不平等 交換關係와 擄取關係를 國際的 次元의 中心과 周邊의 關係로 결부시켜 分析 說明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注目해야 할 점은 從屬理論은 自我準據的인 視角을 통해서 接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自我準據란 自己自身을 準據(觀察)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즉 從屬理論은 第3世界의 從屬理論家가 自國의 歷史와 現實에 準據해서 主體的으로 定立한 理論이라는 点이다.

이러한 主張은, 世界는 同質的이고 比較優位²¹⁾를 가지는 財貨生産의 特化(Specialization)가 世界의 규모의 資源分配를 하는데 있어서 最適일 뿐 아니라, 國家의 福祉의 極大化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던 지금까지의 國際貿易理論에 대한 하나의 挑戰이라 생각된다.

2. 低發展의 問題

從屬理論家들은 第3世界가 低發展狀態에 있는 것은 工業化된 資本主義 國家의 팽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先進國은 資本主義의 팽창이라는 歷史的 過程을 통하여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勢力을 第3世界로 침투하므로써 그 결과 中心地域은 發展하게 되고 周邊地域은 低發展의 原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Frank는 오늘날 가장 低發展的이고 封建的인 것처럼 보이는 地域이 과거에는 中心과 가장 密接한 關係를 유지하고

¹⁹⁾ 裴燦福, 「이데올로기 理論과 實踐」(서울: 法文社, 1984), pp.274~275 참조.

임홍철, 「第3世界와 從屬理論」(서울: 한길사, 1980), pp.179~180 참조.

²⁰⁾ 韓國政治學會, 前掲書, p.100.

²¹⁾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의 自己發見」(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1), p.238 참조.

河環根, 「第3世界 政治論」(서울: 한길사, 1981), pp.177~179.

있었던 地域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rank는 歷史에 대한 약간의 知識만 있다면 第3世界의 低發展이 本源의인 것이 아니고 低發展國의 과거나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發展國家들과 유사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發展國은 비록 未發展(undeveloped)된 狀態에 있었던 때는 있었지만 한번도 低發展(underdeveloped)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²²⁾ 즉 低發展일 경우는 先進資本主義國과의 政治的 經濟的 關係를 갖게 되면 周邊國은 滅亡(fall of nation)하게 되고, 未發展의 상태인 나라가 先進資本主義國과 經濟的 交易과 政治的 外交를 하면 周邊國이 發展된 國家(developed countries)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南美는 低發展에 해당하기 때문에 中心國과 關係를 맺기만 하면 착취당하여 멸망할 수 밖에 없고, 과거의 美國은 低發展에 해당했기 때문에 오늘의 強國으로서 存在한다는 것이다.

從屬理論의 論旨 가운데서 특히 注目할 점은 近代化論者들이 第3世界의 低發展原因을 第3世界의 內在的 要因에서 찾고 있음에 反해서 從屬理論家들은 外在的 要因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第3世界에 팽배하고 있는 從屬的인 狀況은 西歐中心的인 價値觀의 잔재 위에 아직도 世界構造가 얽매여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戰後 西歐의 社會科學者들, 특히 美國의 社會科學者들은 이러한 從屬의 關係가 開發途上國의 後進性에 기인한다고 주장, 그것을 拂拭시키는 길은 低開發國의 近代化 성취가 急先務임을 力說한 것이다. 그리하여 西歐의 모델의 조속한 답습이나 西歐化의 促進을 재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中南美의 未開性 評價는 美國의 中南美介入을 하나의 明白한 運命(manifest destiny)으로 정당화 시켰고 그 結果 擴散理論을 등장시키게 되었다. 즉, 擴散理論에 의하면 낡은 傳統의인 後進地域에 西歐의 資本, 技術, 制度 등을 擴散시키는 滴下理論(trickle down theory)에 의하여 後進地域은 近代化 狀況으로 前進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近代化 促進에 있어서 모든 社會는 이미 發展된 혹은 近代化된 國家가 낡은 그 發展段階를 필히 밟아야 하는 것이 歷史的 必然法則이라는 것이다.

Deutsch의 社會동원론, Eisenstadt의 政治發展의 制度化論, Hoselitz와 Parsons의 유형 변수론(Pattern variables), Rostow의 經濟發展段階論,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Organski의 政治發展段階論, MacClland 교수의 心理的 動機論, Almond와 coleman 그리고 Pye의 構造機能主義 등에서 제시된 擴散理論은 西歐의 近代化의 답습으로 傳統의 후진성이 克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開發國家들은 西歐化의 盲目的 답습이 西歐에 대한 從屬關係를 오히려 深化시킨다는 歷史的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擴散理論을 거부한다. 따라서 近代性의 모델은 世界어디에도 存在하지 않으며 또한 開發途上國이 본받아야 할 原形(archetype)이 고정되어

²²⁾ 兪홍철, 前揭書, p.170 참조.

있지도 않고 모든 開發途上國들은 그 個性에 따라 독특한 그 나름의 近代化의 길이 있다는 것이다.²³⁾

近代化와 政治發展의 문제를 다루는 先進國의 學者들 간에도 近者에 와서는 이미 單一方向으로 一定한 過程과 段階를 밟아 發展할 것이라는 이른바 單線的 發展모델(unilinear model)은 타당성이 적다는 結論에 도달하고, 그 대신 歷史的 狀況의 特殊性을 충분히 고려한 比較研究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가고 있다.²⁴⁾ 요컨대 先·後進國은 歷史的 經驗이 다르고 發展의 始發點이 다르며, 社會經濟的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西歐의 發展모델은 不適合하며 오늘의 開發國이 先進資本主義 國家들이 과거에 처했던 發展段階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거나 先進資本國이 거쳐 온 發展過程을 거쳐 그들과 같은 方向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誤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擴散理論은 先進國이 主導하는 國際資本主義의 經濟秩序를 뒷받침하는 일종의 帝國主義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從屬理論의 論旨은 近代化論者들이 第3世界의 低發展原因을 第3世界의 內在的 要因에 基因하는 것으로 假定하는 것은 부당하며, 第3世界의 低發展은 오히려 大部分이 先進國과 開發國이 國際資本主義 經濟秩序를 통해 歷史적으로 누려온 수탈적 연대관계의 產物이기 때문에 國際經濟秩序를 主導해 온 先進資本主義經濟에 그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論理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先進國은 16世紀의 重商主義政策과 19世紀의 帝國主義政策 그리고 戰後의 經濟援助政策과 開發支援을 통해 開發國의 經濟를 中心國 支配의 國際資本主義體制에 통합시켜 中心國의 資本蓄積과 發展을 위한 基地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는 開發國의 低發展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²⁵⁾

아 물론 從屬理論家들에 의하면 先進資本主義國家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低發展國家들과의 交易關係를 통해서 低發展地域의 生産樣式을 붕괴시키고 그들의 資本主義를 擴散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의 擴散의 결과로서 中心國은 發展했으나 周邊國은 低發展을 면치 못하게 되어 中心과 周邊의 極大化가 深化되었다는 것이다. 中心國의 發展과 周邊國의 低發展은 歷史적으로 同時發生的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을 비롯한 大部分의 周邊國들이 中心國과 關係를 맺음으로써 中心과 周邊이 현실적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韓國의 경우는 工業立國의 경이적인 성공을 거둠으로써 從屬理論家들이 주장하는 低發展 論理를 가지고 이러한 狀況을 說明할 수 없게 된다.

3. 多國籍企業의 問題

Santos에 의하면 15C~16C에 걸쳐 번창했던 유럽의 重商主義政策은 南美諸國 및 世界의

²³⁾ 河環根, 前掲書, pp.176~177.

²⁴⁾ Lucian Pye, *The Formation of New States*, in Ithiel de sola poll (ed.),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7, pp.199~200.

²⁵⁾ Andre Gunder Frank, *Latin America: Underdevelopment or Revolution*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69), p.225.

邊方地域을 유럽의 從屬國으로 전락시켜 中心國과의 關係를 植民地型 從屬關係로 틀 지었으며, 18C~19C에 이르자 重商主義 中心의 植民地型 從屬關係는 周邊國에 대한 中心國의 資本進出을 특징으로 하는 金融—産業型 從屬體制로 變形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從屬關係는 第2次 世界大戰을 계기로 한 때 청산되는가 싶었지만 資本도 技術도 빈약한 周邊國은 또 다시 強大國에 依存하게 되었고, 그 結果 새로이 조성된 從屬關係가 多國籍企業을 주요 매체로 하는 이른바 技術·産業型 從屬 즉 새로운 從屬體制라는 것이다.²⁶⁾

技術·産業型 從屬體制의 主要 매체인 多國籍企業에 대한 從屬理論者들의 견해 또한 주목할 만하다. Sunkel은 오늘날의 從屬의 要諦는 發展國의 強力한 經濟的 代理者인 多國籍企業에 의한 低發展國에의 侵透현상이라 하였다.²⁷⁾ Furtado는 오늘날의 周邊國들이 資本主義의 世界體制에 統合됨에 따라 結果는 從屬이나 低發展은 대체로 세 가지의 歷史的 단계를 거쳐 進行되었다고 하고, 그 세 段階는 比較優位의 단계, 輸入代替의 工業化 단계, 그리고 多國籍企業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²⁸⁾ 그런데 大多數의 從屬學派의 多國籍企業에 대한 假設은 다음 세 가지로 要約해 볼 수 있다.²⁹⁾

첫째, 海外投資의 利益이 宿主國에게 貧弱하에 分配되어 지고 있다. 즉 國內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해 利用될 수 있는 經濟剩餘가 多國籍企業에 의해 流出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多國籍企業이 子會社인 周邊國에 企業運營을 위한 技術導入을 할 때 그 技術은 子會社인 低發展國의 실정에 不適合한 것으로서 母會社가 존재하는 中心國에 알맞게 개발된 것이다. 왜냐하면 子會社가 있는 低發展國에 적합한 새로운 技術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費用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子會社에서의 경쟁적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며 投資者는 寡占技術利用料(oligopoly rent)를 얻게 된다.

또한 從屬理論家들에 의하면 多國籍企業들의 대부분도 子會社가 속하는 宿主國에서 捻出되고 있으며 再投資에서 생긴 利益의 대부분은 母會社가 존재하는 中心國으로 流出되기 때문에 子會社가 存在하는 周邊國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1960~68年 사이에 브라질에서 純利益중 平均 79%를 母國으로 流出시켰다는 사실로서 證明이 된다고 한다.

둘째, 外國의 投資가 宿主國의 國內經濟에 經濟的 歪曲(Economic distortion)을 惹起시킨다는 것이다. 多國籍企業을 통한 海外投資가 계속되면 國內資本家들은 결국 投資機會를 잃게 되고, 國內資本은 外國의 産業 및 金融資本에 從屬關係로 통합되어 多國籍企業은 國

²⁶⁾ Theotonio Dos Santos, *op. cit.*, p.232.

²⁷⁾ Osvaldo Sunkel,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External Dependence in Latin Americ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6. No.1 (October 1969).

²⁸⁾ Celso Furtado, "The Concept of External Dependence in the Study of Underdevelopment" in Charles K. Wilber, (ed.),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New York: Random house, 1973), pp.120~127.

²⁹⁾ T.H. Mar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Dependen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32, No.1 (Winter 1978), pp.79~100 참조.

丙에서 土着資本을 基幹産業에서 몰아내고 國家經濟의 主導權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多國籍企業이 周邊國에는 不適切한 資本主義의 技術을 導入함으로써 失業을 조장하고 經濟를 歪曲시킨다고 본다.

세째, 外國의 投資가 宿主國의 會社를 政治的으로 歪曲(political distortion)시킨다는 것, 즉 國家主權에 간섭함으로써 政治過程을 歪曲시킨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多國籍企業이 좀더 安全하고 自由로운 企業利潤과 獨占力 確保를 위해 資本主義와 外國資本에 가장 協助的이고 開放的인 資本主義的 政治體制를 만들기 위해 宿主國內에 多國籍企業의 母國에 징검다리 役割을 할 수 있는 엘리트 階層을 形成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엘리트 集團은 外國企業의 活動에서 利益이 保障되므로 自國의 自主的인 發展計劃을 歪曲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急進主義學派들은 이들을 第5列(fifth column) 또는 買辦的 成分(comprador element of the national bourgeois)이라고 비난하고 있다.³⁰⁾

그러나, 多國籍企業이 第3世界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否認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영향력이 第3世界 諸國의 意志를 排他的으로 규정할 정도로 一方的이고 包括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多國籍企業이 第3世界의 經濟를 착취하고 그 成長을 歪曲시키고 있음을 완전히 排除할 수는 없으나, 製造業, 用役産業 및 下位體系에 대한 投資가 반드시 危害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資本主義體制的 屬性이 利潤追求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長期間에 걸친 國家間的 관계는 서로 協助的이고 補完的인 입장에서 모두에게 利益이 되는 去來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脫從屬의 問題

從屬理論家들은 周邊國의 低發展 原因이 中心國에의 從屬關係와 搾取의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意見의 一致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한 從屬狀況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脫從屬의 發展戰略에 대해서는 各派間에 각기 다른 見解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脫從屬의 代案으로 세 가지 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첫째, Prebisch, Pinto, Wionczek 등 保守主義者들은 대체로 開發途上國들이 低發展의 原因인 外部勢力의 從屬狀態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有益한 指導的 役割을 그들 自身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한 脫從屬方案을 提示하지 않고 있다.

둘째, Santos, Furtado, Sunkel, Gaultung, Cardoso 등 穩健主義者들은 多國籍企業을 植民支配의 하나의 형태로 보고, 海外援助와 海外投資 및 貿易去來 등은 中心國의 政策武器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規定하면서 暴力手段을 통한 社會的인 改革을 요구하고 있다.

穩健主義者인 Cardoso는 라틴 아메리카의 從屬과 發展(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³⁰⁾ 國民倫理學會, 「現代急進思想論文集」(서울: 國民倫理研究 第18號, 1984), pp.200~201. 裴燦福, 前揭書, pp.277~286 참조.

Latin America)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産業부르조아들은 國內市場에서 자신들의 地位를 획득 유지하기 위해 外國資本과 經濟的 또는 政治的 同盟을 맺으려 하기 때문에 이들 民族부르조아들에게 對外的 侵透에 대한 脫皮運動을 主導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脫從屬을 위해서는 周邊部門의 大衆이 民族主義의 旗幟아래 조직되어야 한다³¹⁾고 주장하고 있으며, Furtado는 民族부르조아를 排除시키거나 取捨選擇하는 것만이 古典的 資本主義路線에서의 歪曲된 發展可能性으로부터 脫皮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제, Frank, Cockcraft, Johnson, Petras, Amin 등 急進主義者들은 마르크스主義的 觀點에서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制를 克服하면 資本主義體制의 붕괴와 社會主義的 發展이 유도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勞動者들이 民族的 부르조아와 투쟁하여 從屬이 除去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急進主義者들은 資本主義體制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武裝투쟁이나 集團抗拒 내지는 게릴라 活動 등을 포함하는 社會主義的 革命을 요구하고 나선다.

Johnson과 같은 急進主義者는 人民革命 또는 權威主義的 政府에 대한 反動만이 第3世界가 擇해야 할 基本的인 路線이라 했는데³²⁾ 이 때 反動的 主體는 全體의 參與로부터 疎外된 社會的 階級의 最下層의 人들을 지칭한다. Frank에 의하면 최하층 人들인 大衆들은 언제나 革命의 潛在力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第3世界 國家에 있어서 支配階級은 改革을 하기 보다는 現狀維持的 내지는 從屬의 深化에 관심이 있을 뿐이므로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現存하는 支配階級이 打倒되고 급격한 經濟成長을 擔當할 수 있는 엘리트로 代置되어야 한다고 했다.

以上에서 從屬理論家들이 주장하는 脫從屬의 代案을 소개했으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中心國에 의한 周邊國의 從屬을 肯定한다 해도 穩健主義者들이 주장하는 暴力手段만이 社會改革의 方案이 될 수는 없다. 또한 急進的 從屬理論家들의 革命戰略이 武裝鬭爭과 集團抗拒 등 社會主義 革命路線이라면 이는 資本主義 崩壞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目的과 그 手段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從屬理論과 마르크스-레닌主義와의 關係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V. 從屬理論과 마르크스-레닌主義와의 關係

從屬理論은 Chilcote가 分類한 바와 같이 資本主義的 觀點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觀點도 상당 部分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³³⁾ 또한 많은 從屬理論家들이 자신들의 理論을

³¹⁾ F. Cardos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Left Review, No.14 (July-August, 1972).

³²⁾ D.L. Johnson, *The Chilean Road to Socialism*, New York, Doubleday, 1973. p.33.

³³⁾ Ronald H. Chilcote, *A Question of Dependency*, Latin America Review, Vol. XIII, No. 2, 1978, p.6.

마르크스主義에 結付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³⁴⁾ 이들이 從屬理論과 마르크스—레닌主義 理論을 결부시키려는 데에는 몇 가지 理由가 있다. 그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로 從屬理論은 분명히 階級分析의 틀로 看做해야 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階級概念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둘째로 從屬理論은 궁극적으로 資本主義와 帝國主義를 거부하기 때문에 레닌의 帝國主義 理論과도 結合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共通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理論을 結合시키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마르크스主義의 思考의 要諦는 生産樣式, 財貨와 生産關係, 上部構造와 下部構造 등으로 要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發展問題에 대한 마르크스理論의 핵심이기도 하다. 따라서 低發展問題를 다루고 있는 從屬理論과 마르크스理論을 결합함에 있어서는 위의 概念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마르크스理論에서 階級分析이 主된 關心事였기는 하지만, 階級概念을 精巧하게 다듬지는 않고, 오히려 政略과 관련지어 意味를 부여하는 정도였다. 이에 비해, 從屬理論의 中心概念은 階級意識으로부터 出發하였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보다 더욱 階級概念이 강조된다.

둘째, 帝國主義의 理論을 從屬의 觀點에 연결시키려는 시도 역시 관심거리다. 英國의 自由主義者 Hobson이 帝國主義論을 쓴 이후로 帝國主義論은 支配國家와 從屬國家사이의 不平等을 假定하고 있으며, 레닌의 帝國主義論도 從屬을 考慮에 넣고 있다. 이리하여 從屬理論家들은 자기들의 理論의 주장에 대한 理論의 支柱를 레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레닌에 있어서의 帝國主義란 단순히 資本主義의 獨占段階를 말하기 때문에 從屬理論家들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概念을 그대로 援用하는 것은 잘못일 수 밖에 없다.

셋째, 마르크스와 레닌은 궁극적으로 後進國의 勞動者, 農民이 각성하여 中産層과 연합으로 帝國主義體制에 抵抗할 것으로 展望했으나, 從屬理論에서는 低發展國家가 계속 經濟的, 文化的으로 빈곤하고 落後된 國家이며, 또 政治的으로도 從屬의인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勞動者들이 상대적으로 保守化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失業者, 貧困한 農村人口만이 變化를 갈망하나 그들은 그러한 變化를 성취할 힘이 없기 때문에 革命的 成就를 예언하는 마르크스主義와 相異점을 發見할 수 있다.

그러나, 最近 Amin, Petras, Frank 등 從屬理論家들은 從屬의 概念을 마르크스主義의 革命論者 뿐만 아니라 부르조아의 社會改良主義者들이 共用하는 것에 不滿을 表示하면서 從屬理論을 보다 마르크스主義的으로 施回시켜야 된다고 力說하고 있다. 이들도 初期에는

³⁴⁾ 마르크스이론과 중속이론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는 최근 Amin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Amin은 부르조아 사상을 공격하고 중심국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자의 해석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신자본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불평등 발전에 관한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이 이론을 명확하게 발전시킨다. 그러나 Amin의 연구는 계급투쟁을 애매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엄홍철, 前掲書, pp.21~22 참조.

古典的 帝國主義論者들이 가지고 있던 見解에 批判적이었고, 低發展을 研究하는 데는 帝國主義的 方法論과는 다른 paradigma(Paradigm)³⁵⁾를 適用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후기에 와서는 Baran, Sweezy 등의 네오 마르크스主義者(Neo-Marxist)들의 영향을 받아 資本蓄積과 關聯된 階級分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古典적이고 유럽적인 마르크스主義가 主體的 階級鬭爭을 경시한다 하여 점진적 時代改良과 같은 정상적인 方法에 의한 經濟的 改革을 反對하고 있다.³⁶⁾ 이들의 이와 같은 경향은 초기의 從屬理論의 문제의식을 退色시킴과 동시에, 批判의 素地를 제공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VI. 從屬理論의 問題點

지금까지의 考察을 통해서 대체로 밝혀진 從屬의 概念, 形成背景, 主要論點, 마르크스-레닌主義와의 關係 등을 토대로 해서 從屬理論이 안고 있는 몇 가지 問題點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接近方法上的 誤謬

첫째, 從屬理論은 第3世界의 低發展現象을 分析함에 있어서 全體論(holism)적인 接近方法을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記述에 치우치는 傾向이 강하며 檢證이 可能한 一般화된 理論의 定立은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從屬理論은 從屬과 低發展과의 因果關係를 說明할 수 없는 限界性이 있다고 보겠으며, 記述次元에 머물러 있는 假設的 理論 내지 科學的인 說明力과 立證性이 매우 희박한 豫備理論에 不過하다고 하겠다.³⁷⁾

둘째, 從屬理論은 國際體制的인 視角에서 第3世界의 發展과 低發展現象을 分析한다. 이와 같은 接近方法에 있어서 分析의 基本單位는 國際體制 또는 秩序이며, 第3世界에 속하는 國家의 發展은 國際秩序上的 位相이 어떠한에 따라 決定的으로 주어질 뿐 第3世界 國家나 政府는 自律성과 主體性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볼 때 第3世界 國家는 自身の 意志와 努力 여하에 따라 國際經濟秩序上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位相을 얼마든지 變경시킬 수가 있다. 第3世界 國家들이 國際資本主義體制內에서 차지하는 從屬의 地位가 第3世界의 發展을 阻害한다 하더라도, 이들 國家의 發展速度와 方向은 第3世界의 國家形態와 政府役割, 社會文化的 遺産과 屬性, 賦存資源의 種類와 程度, 리더쉽과 같은 內部的인 要因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³⁵⁾ Paradigm은 본래 品詞의 語型變化表를 말하는데, 美國의 社會學者 Thomas S. Kuhn이 科學의 paradigma이란 말을 쓰면서부터 어떤 論理的 構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현상들에 대해서 科學的인 조사할 수 있도록 조직해 주고 方向을 제시해 주는 일련의 理論의 틀을 말한다.

³⁶⁾ 金玟河, 「現代社會와 미래를로기」(서울: 大旺社, 1982), pp.184~185.

³⁷⁾ 金浩鎮, 「從屬理論 研究: 現代社會思想의 諸潮流」(서울: 螢雪出版社, 1982), p.230.

세계, 從屬理論자들은 中心과 周邊國 사이의 不平等交換이 周邊國의 低發展을 深化시키는 基本要因으로 看做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論理는 第1世界가 第3世界에 미치는 影響力 내지 構造的 關聯性的 分析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第3世界의 內在要因 分析에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誤謬를 범하고 있다. 이 점은 從屬理論자들이 第1世界의 近代化理論을 犧牲者 非難論이라고 공격한 것처럼, 第1世界의 發展論者들로부터 責任回避論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³⁸⁾ 이와 같은 誤謬는 中心國과 周邊國의 存在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兩者간의 交換關係를 통해 第3世界의 低發展을 說明했기 때문에 發展과 低發展의 根本의인 문제를 도외시한 方法論的인 限界를 지니게 되고 만다.

2. 從屬概念上的 誤謬

첫째, 從屬理論에서 사용되는 特別한 非對稱的 構造 및 關係의 많은 分析道具들이 客觀的 精密性이나 概念的 明瞭性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Bath와 James는 從屬分析에 있어서 이러한 모호성이 從屬이라는 用語 자체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從屬分析에 의해 形成되는 그 理論體(body of theory)內的 여러 論議 事項들에도 똑같이 存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⁹⁾ 즉, 從屬理論은 從屬概念 自體를 포함하여 概念들간의 假設化된 關係들이 實證的으로 檢證할 수 있는 精密性을 缺如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從屬이 어떠한 現象을 내포한 概念인가 하는 貝體的 現實適用에 있어서 그 定義가 一致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從屬을 어떠한 指標를 사용하여 어떻게 測定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不明確한 狀況에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從屬의 概念이 經濟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的, 政治的 構造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從屬의 指標選定 및 測定은 더욱 곤란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從屬理論은 第1世界와 第3世界의 關係를 支配—從屬關係로 규정하고 兩者間의 政治·經濟的 力學關係에 수반된 制반現象을 第3世界의 發展 또는 低發展 문제와 결부시켜 分析說明하고 있다. 그런데 現實的인 입장에서 볼 때 各國은 多方面에 걸쳐 相互依存關係에 있을 뿐만 아니라 國家經濟의 國際化 추세가 加速化됨에 따라 世界의 모든 國家가 絕對 自立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不可能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第1世界와 第3世界의 關係를 支配와 從屬의 關係로 규정짓는 從屬의 概念은 스스로 誤謬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복잡한 國際經濟의 유통과정과 國家間의 多元的 交流關係라는 메카니즘을 從屬이라는 하나의 單一概念으로 說明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파적이고 單純論理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³⁸⁾ Tony Smith, *The Underdevelopment of Development Literature: The Case of Dependency Theory*, World Politics, Vol.31, Jan., 1979.

³⁹⁾ C.R. Bath and D.D. James, *Dependency Analysis of Latin America*, Latin America Research Review, Vol.6, No.3, 1967, pp.3~54 참조.

세계, 現實的으로 國家間的 關係는 相互依存의 이기 때문에 從屬性은 第1世界와 第3世界 모두에게 存在할 수 있다. 가령 第3世界가 技術部門에서는 第1世界에 從屬되어 있지만, 資源部門에서는 우세한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은 資源部門에서도 食糧分野에서는 從屬되어 있으나 에너지 分野에서는 支配的인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 사실 先進國도 石油 등과 같은 특정 領域에 있어서는 後進國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점은 70年代 初의 오일 쇼크가 잘 입증해 주고 있다.⁴⁰⁾

3. 論理上的 誤謬

첫째, 從屬理論은 國際資本主義 經濟秩序를 中心과 周邊의 二大範疇로 또는 中心과 準周邊과 周邊의 三大範疇로 類型化하고 各範疇間의 關係를 不平等交換 또는 搾取關係로 파악한다. 그리고 中心國과 周邊國의 尤대가 강할수록 周邊國의 低發展은 深化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너무나 單純하고 獨斷的인 論理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Cardoso나 Evans 같은 從屬的 發展論者는 中心國과 周邊國의 尤대가 강할수록 制限的인 이기는 하지만 成長은 加速化된다는 反對 命題를 제시하고 있다. Szymanski는 周邊國은 일반적으로 中心國에 의해 搾取당하고 있으며 先進資本國에 從屬됨으로써 상대적인 落後를 겪게 되었다는 從屬理論의 基本命題를 긍정하면서도 從屬의 程度와 經濟成長率은 正의 函數關係 즉 從屬의 程度가 심할수록 經濟成長은 빠르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發見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⁴¹⁾ 이처럼 從屬理論은 實證性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從屬과 低發展을 等式化하는 것은 論理的인 誤謬임이 分明하다. 따라서 從屬理論은 第3世界의 低發展에 대한 責任을 第1世界가 져야 한다는 責任回避에 대한 非難을 받게 된다.

둘째, 從屬理論은 外資와 技術의 導入을 發展의 必須條件으로 보는 擴散理論의 論旨를 批判하고 中心國으로부터의 外資와 技術의 導入을 低發展의 原因으로 想定한다. 그러나 外資中에는 長期低利借款처럼 經濟基盤의 構築에 기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排斥하는 태도는 止揚되어야 하며, 技術 또한 日本의 經濟成長이 例證하듯이 어떻게 受容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順機能 要因으로 看做될 수 있다. 따라서 外資와 技術의 導入을 부정하는 從屬理論의 입장은 보편성이 缺如⁴²⁾된 論理上的 誤謬다.

셋째, 比較優位論을 배격하는 從屬理論의 입장 또한 같은 理由에서 보편성이 희박한 論理다. 比較優位論이란 特定産業이나 商品의 專門化와 高級化를 통해 國際競爭力을 強化함으로써 國際貿易의 優位를 確保하는 發展戰略이다. 比較優位의 確保를 위한 主要 수단으

⁴⁰⁾ Sanjai Lall, *Is Dependence a Useful Concept in Analysing Under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3, Nov., 1975 참조.

⁴¹⁾ A. Szymanski, *Dependence, Exploita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No. 4 (Spring, 1976), p. 63.

⁴²⁾ David Ray, *The Dependency Model of Latin American Underdevelopment*, Journal of Inter 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15, Feb., 1973, pp. 4~20.

로는 資本, 技術, 經營, 管理 등의 方法이 重要視되며 동시에 外資의 誘致와 技術의 導入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外資와 어떤 技術을 導入해서 어떻게 活用하며 어떤 商品이나 産業을 育成하느냐에 따라 比較優位の 確保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比較優位論 자체를 부정하는 자세는 남득할 수 없는 論理上的 誤謬라 생각한다.

요컨대, 大部分의 從屬學者들은 資本主義 從屬經濟의 低發展運動法則을 從屬→低發展→社會主義革命 또는 保守革命으로 定式化 함으로써 各國의 特殊性을 外面한 機械的인 形式論理의 誤謬에 빠지고 만 것이다.⁴³⁾

4. 脫從屬 戰略의 問題

脫從屬 문제에 대한 穩健論者들의 發展戰略은 別문제가 없기 때문에 除外하고, 여기서는 急進論者들의 견해를 中心으로 批判해 보기로 한다. 急進論者들은 社會主義 暴力革命이 外國資本家와 國內 買辦勢力간의 聯合을 파괴시키고 發展을 沮害하는 國內의 封建的 要素들을 제거할 것으로 생각하며, 自給體制(Autarky)를 통한 自力發展이 可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急進論者들의 脫從屬 戰略은 다음과 같은 誤謬를 지니고 있음을 注目해야 한다.

첫째, 從屬理論家들은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로의 轉換方法과 可能性에 대한 남득할만한 論理的인 說明이 없이 社會主義暴力革命의 필요성을 제창한다. Angotti의 지적에 의하면 從屬論者들은 社會主義革命을 低發展의 克服을 위한 代案으로 提示하면서도 從屬的 資本主義 社會構成體의 形成過程이나 그 構造機能的 特性, 또는 體制移行의 戰略方案과 革命의 필요성을 說得力있게 論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⁴⁾ 從屬論者들이 社會主義革命의 連성을 說明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脫從屬 戰略에 誤謬가 있음을 反證하는 것이 된다.

둘째, 第3世界가 國際資本主義 經濟秩序와의 關係를 끊고 自力更生의 政策을 採擇한다는 것은 오히려 自國의 國家發展을 沮害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強大國에의 從屬을 惹起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은 中共이 毛澤東의 自力更生論의 閉鎖性을 止揚하고 外資導入의 門戶開放을 통한 經濟改革 조치를 단행하여 西歐의 資本과 技術까지 도입해서 四大 現代化 路線을 追求하고 있다는 사실, Chile가 70年代初 Allende 政權을 통해 社會主義體制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끝내 失敗하고 말았다는 사실, 東歐圈에서도 西歐 資本主義 國家와의 協력을 통해 經濟發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實證的인 事例를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도 合作投資 運營法을 제정(84. 9. 8)하고 開放政策을 선언함으

⁴³⁾ Gabriel Palma, *Dependency: A Formal Theory of Underdevelopment or a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Concrete Situations of Under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6, 1978, pp.903~905.

⁴⁴⁾ Thomas Angotti,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Dependency Theor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s, 30 & 31, Vol.VIII. Nos.3 & 4, (Summer and Fall, 1981), pp.127~130.

로써 國際關係의 改善에 나서고 있다. 즉, 그들이 西歐資本主義와의 協力を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社會主義 發展모델에 限界性이 있음을 反證해 주는 결과가 된다.

쿠바는 1898년까지 스페인領이었으나 美國人의 經濟的 利益保護를 위하여 美·스페인간의 戰爭에서 美國이 승리하자 1902년까지 美軍政下에 놓이게 되었다. 그 후 쿠바는 獨立은 되었으나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으로부터의 經濟的 壓迫이 대단했다. 따라서 土地改革을 포함한 經濟改革으로서 反資本主義를 선언한 카스트로는 1953年 7월 26일 몬가다兵營의 공격을 비롯한 革命運動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1959年 1월 바티스타政權을 타도했다. 쿠바革命의 성공은 第3世界에 대해 非資本主義的·非소비에트의 發展路線의 可能性을 제시해준 사태로서 받아들여졌었다. 쿠바는 社會主義 革命에는 성공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蘇聯에 依存하는 새로운 從屬關係를 深化시킴으로써 脫從屬에는 失敗하게 되었다. 이렇듯 社會主義의 革命이 失敗로 끝나게 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 理由는, 社會主義的 革命에 수반되는 社會的 혼란과 國力の 낭비는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歷史적으로 본다면, 社會主義와 生産性을 높이는 문제 사이에는 否定的 關係가 성립된다는 것이 蘇聯의 例에서 發見되었다. 소련의 경우 耕作地의 99%가 集團農場 또는 國營農場이다. 私有地는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1%의 私有地에서 蘇聯 전체 農業生産의 30%가 生産되고, 菜蔬는 50%가 생산된다. 그리고 Conquest라는 學者의 통계에 의하면, 1930~40年 사이에 소비에트 國家를 건설하기 위한 社會革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650萬의 人命을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從屬理論家들의 궁극적인 目標인 脫從屬은 社會主義 革命으로부터 保障되는 것이 결코 아님이 實證되었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社會主義 革命의 脫從屬 戰略은 政策代案으로서 適實性이 缺如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VII. 從屬理論과 韓國

最近 우리 社會에서도 學界와 一般人 사이에서 從屬理論에 대한 論議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大學生 階層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도 라틴 아메리카 처럼 植民地로서의 經驗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60年代 以後 輸出主導型 經濟成長 과정에서 파생된 對內的인 不平等과 對外依存의 深化現象에서 그 原因을 찾아보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從屬理論의 研究動機를 認定한다 하더라도, 그 分析方式을 그대로 우리 社會에 適用시키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歷史的, 文化的 傳統이나 自然的인 與件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풍부한 賦存資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數世紀 전부터 美國이나 西歐와의 關係에서 農産物이나 鑛産物 등 一次產品은 싸게 輸出하고 工業品은 비싼 값으로 輸入하는 不平等交換이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에 있어서는 從屬理論이 결실한 문제로서 共感을 살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狀況의 與件은 전혀 다르다. 歷史적으로 볼 때, 先進國이 우리나라와 접촉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經濟的인 理由보다는 地政學的 特殊性에 따른 政治·軍事的 配慮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從屬理論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인데, 周邊國家가 資本主義的 經濟體制에 編入됨으로써 또는 發展國家와의 관계가 밀접해짐으로써 低發展과 從屬이 深化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世界銀行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1960~83년까지 世界各地의 年平均 GNP의 成長率이 東南亞諸國이 3.6%, 라틴 아메리카 4.6%, 아프리카 3.1%, 歐美先進工業國 2.8%, 韓國은 7.0%의 高度成長率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輸出에 있어서도 1962년의 5,400萬弗에서 1983년의 241억弗로 약 446배의 증가를 보였다. 지난 10年 동안 世界의 輸出規模는 平均 18.7%의 成長率을 기록한데 反하여 우리나라는 39.5%의 成長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統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國際經濟體制에 編入됨으로써 經對的 成長은 물론, 相對的인 成長을 달성했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 즉, 從屬理論家의 예언이나 진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끝으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現在의 우리나라의 狀況을 分析함에 있어서 從屬理論의 기본 틀, 특히 마르크스主義와의 관련성이 많은 理論을 適用한다는 것은 適合하지 않다는 점이다. 分斷狀況이라는 獨立變數를 考慮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르크스主義的 生産樣式論이나 階級對立을 尖銳化하여 暴力革命을 고무시키고 있는 急進的인 從屬理論家들의 最近의 論理는 不適切한 理論構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從屬理論이 新帝國主義와 分析視角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批判的 受容態度가 必要하다. 특히, 이데올로기의 分斷狀況에 처해 있는 우리는 社會科學的 概念을 自我準據的 視角을 통해 接近하려는 知的 分위가 필요하다 하겠다.

VIII. 結 論

從屬理論은 第3世界의 從屬理論家들이 自國의 歷史와 現實을 主體的인 視角을 통해서 接近하므로써 自國의 發展問題를 생각하고 그에 관한 理論을 定立시킨 自我準據的 理論이다.

從屬理論의 論旨은 西歐의 近代化論者들이 第3世界의 低發展 原因을 第3世界의 內在的 要因에서 찾고 있음에 反해서 從屬理論家들은 그 原因을 外在的 要因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西歐的인 發展理論을 주장하는 傳統學派는 第3世界의 發展을 制限的인 것으로 보고 第1世界의 協助와 好意에 의해서 近代化될 수 있다는 擴散理論을 주장한다. 그러나 從屬理論家들은 第3世界의 西歐化는 從屬을 深化시킨다고 주장하고, 擴散理論은 國際資本主義 經濟秩序를 뒷받침하는 일종의 帝國主義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즉, 從屬理論家들

은 國際資本主義의 經濟秩序를 問題視하고 社會主義體制를 選好하며, 마르크스主義의 基本思想과 帝國主義의 理論을 빌어 資本主義의 膨脹主義的 屬性和 社會의 構造의 分析에 着점을 맞추고 있다.

從屬理論家들이 分析·說明한 諸理論은 客觀的 精密性이나 概念的 明瞭性を 缺如하고 있으나 다음 몇 가지 點은 社會科學의 發展에 크게 貢獻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첫째, 從屬理論은 第3世界의 主體的 立場에서 社會現象을 分析하는 自我準據的 視角을 提供했다는 點.

둘째, 從屬理論은 第1世界의 擴散論者들이 소홀히 했던 第3世界 低發展의 外的 要因을 重要視했고, 그 要因이 內的 要因과 構造的으로 融合되어 相互作用한다는 것을 밝혀낸 점.

셋째, 從屬理論은 第3世界의 發展代案을 모색함에 있어 單線發展의 模型을 떠나 脫從屬을 第3世界 發展의 前提條件으로 想定하고, 第3世界의 獨自路線에 부합하는 發展方案을 주장했다는 점 등이다.

從屬理論이 社會科學의 發展에 이와 같이 貢獻했음에도 不拘하고, 分斷이라는 우리 韓國의 特殊狀況을 생각할 때 從屬理論의 受容은 各별한 新증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急進主義者들의 從屬概念에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意味가 포함되어 있고, 脫從屬을 위한 方法으로서 暴力革命과 같은 過激한 수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盲目的으로 受容한다든가 無批判的으로 論議한다는 것은 우리 社會에 크게 惡用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第3世界가 資本主義의 中心國과의 關係에서는 低發展되고 從屬된다는 주장과는 달리 우리 韓國은 國際資本主義經濟體制에 編入됨으로써 絕對的 成長을 이룩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從屬理論을 自我準據的 立場에서 接近해야 한다는 結論을 얻게 된다.

參 考 文 獻

1. 金得柱, 이데올로기론, 서울, 박영사, 1982.
2. 金玟河 外, 國際社會와 이데올로기, 서울, 敎學硏究社, 1984.
3. 金善亨 外, 現代社會와 이데올로기, 서울, 大旺社, 1982.
4. 金永文, 中共의 世界戰略: 第3世界論과 實際, 서울, 大旺社, 1982.
5. 金浩鎭, 從屬理論硏究: 現代社會思想의 諸潮流, 서울, 螢雪出版社, 1982.
6. 金浩鎭 譯, 제3세계의 政治經濟學, 서울, 한울사, 1984.
7. 朴在默 譯, 第3世界社會發展論,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4.
8. 박종수 역, 從屬理論이란 무엇인가, 서울, 청아출판사, 1984.
9. 裴燦福, 이데올로기 理論과 實踐, 서울, 法文社, 1984.
10. 邊衡尹, 朴玄塚 外, 제3세계의 이해, 서울, 형성사, 1983.
11. 邊衡尹 譯, 제3세계의 경제발전, 서울, 까치글방, 1980.
12. 成均館大 附設 社會科學硏究所 編, 從屬理論, 그 理解와 批判, 서울, 法文社, 1982.
13. 嚴홍철, 第3世界와 從屬理論, 서울, 한길사, 1980.
14. 嚴홍철, 從屬理論: 低發展의 政治經濟學, 서울, 法文社, 1981.

15. 염홍철 譯, 종속이론과 정통마르크스주의, 서울, 한울사, 1984.
16. 조용범, 후진국 경제론, 서울, 박영사, 1983.
17. 河環根, 第3世界 政治論, 서울, 한길사, 1980.
18. 韓點洙, 이데올로기 新論, 서울, 大旺社, 1985.
19. 韓國國民倫理學會, 現代急進思想論文集 第18號, 1984.
2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의 自己發見,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81.
2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우리의 현실과 과정 過程사상,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2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제3세계 연구(II),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23. 韓國政治學會, 韓國政治學報 第17輯, 1983.
24. 韓國政治學會, 韓國政治學報 第18輯, 1984.
25. John Strachey, *The Great Amakening*, Encounter (Pamphlet,) No.5.
26. Eugene Staley, (ed.), *The Future of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Frerick A. Praeger Inc. (1961).
27. P.L. Berger, *Pyramids of Sacrifice: Political Ethics and Social Change*, N.Y: Garden City (1976).
28. James A. Caporaso, et. al (1978),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Special Issue on Dependence and Dependency), Vol.32, No.1 (Winter, 1978).
29. Theotonio Dos Santos, "The Structure of Depen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0, No.2 (1970).
30. Richard R. Fagen, "Studing Latin American Politics: Some Implications of Dependencia Approach",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XII, No.2 (1977).
31. Bath & James, "Dependency Analysis of Latin Amelica: Some Criticisms, Some Suggestions", *Latin America Research Review*, Vol.11, No.3 (1976).
32. R. Prebis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Principal Problems*, Economic Bulletin for Latin America, Feb. 1962.
33. John Galtung, *The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XXX2, 1971.
34. Lucian Pye, *The Formation of New States*, in Ithiel de Sola Poll (ed.),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7.
35. André Gunder Frank, *Latin America: Underdevelopment or Revolution*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69).
36. Osvaldo Sunkel,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External Dependence in Latin Americ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6, No.1 (october. 1969).
37. Celso Furtado, "The Cconcept of External Dependence in the Study of Underdevelopment", in C.K. Wilber, (ed.),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New York: Ramdom House, 1973).
38. T.H. Mar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Dependency", *Internatinal Organization* Vol.32, No.1 (Winter 1978).
39. F. Cardoso,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Left Review*, No.14 (July-August, 1972).
40. D.L. Johnson, *The Chilean Road to Socialism*, New York, Doubleday, 1973.
41. Ronald H. Chilcote, *A Question of Dependency*, *Latin America Review*, Vol.XIII, No.2, 1978.

42. Tony Smith, The Underdevelopment of Development Literature: The Case of Dependency Theory, *World Politics*, Vol. 31, Jan., 1979.
43. C.R. Bath and D.D. James, Dependency Analysis of Latin America, *Latin America Research Review*, Vol. 6, No. 3, 1967.
44. Sanjai Lall, Is Dependence a Useful Concept in Analysing Under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3, Nov., 1975.
45. A. Szymanski, Dependence, Exploita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No. 4 (Spring, 1976).
46. David Ray, The Dependency Model of Latin American Underdevelopment, *Journal of Inter 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15, Feb, 1973.
47. Gabriel Palma, Dependency: A Formal Theory of Underdevelopment or a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Concrete Situations of Underdevelopment, *World Derelopment*, 6, 1978.
48. Thomas Angotti,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Dependency Theory, *Latin American Perspectives Issues*, 30 & 31, Vol. VIII. Nos. 3 & 4 (Summer and Fall, 1981).

The Main Point of Dependency Theory and the Criticism about Its Points at Issue

Yang-Hyuk Kim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As the dependency theorists approach the history and the actuality of their own nations through the subjective vision, the dependency theory is the self authority cited one which they think of the growth issue of their nations and definite the theory about it.

The point of an argument of the dependency theory is the one which the advocator for a modernization are finding the cause of underdevelopment of the third world in the inherent factor of it, while the dependency theorists are finding it from the external one.

The main stream theory insisting the western development theory insist the spread theory which they think to be able to modernize by the co-operation and the favor of the first world because the development of the third world is limited. But the dependency theorists insist that the Westernization of the third world make the dependence be deepen and emphasize that the spread theory is no more than a kind of an imperialism ideology supporting the economic order of an international capitalism. That is, the dependency theorists think the economic order of an internal capitalism to be at issue and like the socialistic system and they bring to a focus to an expansional attribute of capitalism and to the structural anyalysis of the society comforted by Marx's basic thoughts and the theory of imperialism.

The real precision or the conceptional clarity was omitted to the various theories which the dependency theorists had analyzed and explained But it is undeniable that a few of the next points were much dis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science.

The first is the point which the dependency theory made an offer the self authority cited sight being analysis a social phenomenon from a chief objective standpoint.

The second is the point that took a serious view of the outward factor about the under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which the advocator for spread in the first world neglected, and that came to light that the factor acted mutually with being in harmony with the inner factor structurally.

The third point is that the dependency theory asumed an escape from the dependency as the precondition of the third world development without the unliner model in groping an alternative development of the third world, and that asumed the development plan being coincidence to the unique route of the third world.

When we think of a special circumstance in our devided Korea in spite of an dependency's dedication to a social-science, we must consider seriously about being acceptance of it. Because there included Marx-Leninite meaning to its notion of the radicalists, and insisted a radical means like a revolution of force as the method for an escape from the dependency, so it is anxious to be greatly abused in our society to accept it blindly or to discuss it uncritically.

Korea, our nation is the country which has grown rapidly as being assigned to the international capitalism-economic system on the contrary the insist that the third world is underdeveloped and is subordinate in relation with capitalistic center nation.

Therefore we get a conclusion that we must approach the dependency theory from a self authority cited.